

[열왕기하 6장 Bible Study]

- 1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 3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 4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 니이다
- 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 7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함께 가는 엘리사. '내가 가리라' 그냥 하라고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었음.

도끼자루를 빌려온 사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자기의 일만한 것이 아니라. 처소를 세우기 위해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사정에도 함께하였음.
또 그 어려움에도 함께하였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서 해결해주었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백성이고, 주님은 왕이시지만 주님께서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면서 멀리서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주신다는 것이 감사하다.

지난주에 노트북이 고장이나서, 이걸 어떻게 고치나... 휴가를 쓰기는 아까운데..
기도했을 때, 숙직이 끝나고, 삼성전자 서비스를 가서 고칠 수 있었음 빨리 고쳐져서 회사에도 늦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준다 생각이 되었음.

그 외에도 나의 삶의 사정을 너무나 잘아시고, 나의 사정속에 함께하사.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
기도하는 삶에 힘쓸 것!

- 8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 10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 두번이 아닌지라
- 11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 12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13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은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14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5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도와달라고하는 기도보다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불말과 불 병거가 있는데.

이미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못보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니. 불안/걱정/염려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눈이 닫혀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 볼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줄 아는 눈

세상의 시야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줄 알아야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야한다. 그래야 주위가 바뀐다.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함께 해야한다.

하나님과 친밀해야한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할 게 산더미 같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야한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다

아침에 말씀보는 시간이 참 좋다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시간인 것 같다.

계속 가져보자

시편을 가지고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되겠다.

18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21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2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23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4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분태 사분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26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28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람의 군대장관을 도와줬는데, 아람이 쳐들어오는 상황
이스라엘 왕을 도와줬으나,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는 상황
사람의 마음은 시시로 바뀌고
잘해준다고해도, 욕심이 있으면 배신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Give And Take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맞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것이
그저 속고 속이는 경우인 것이다.
(딤후3:13)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관계를 맺고
잘해주고, 도와주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 신물나는 관계에 얽매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저, 받고 또 받는 관계가 아닌가.
사랑 받고, 또 사랑받는 관계였다.

아침에 나아가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사랑의 도우심을 보여주시고
힘든 것도 모두 사랑이었으니
(요3:16)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안에 잘 거하는 삶을 살아야되겠다.

30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를 입었더라
31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찌로다 하
니라
32그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
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
리요